

 잊지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이달의인물] 나는 발명가다. 진주중앙고 3학년 서강민
- ▶▶[청소년뉴스] 성범죄 교사 46.5% 여전히 교단에
청소년 패스트푸드 섭취, 10년새 반토막
- ▶▶[학교소식] 진주남중 씨름 시즌 4관왕 달성 기염
진주중, 관악경연대회 4년 연속 금상
진주동명중 경남학생창의력페스티벌 우승
경남과학고, 과학논술로 전국에 우뚝!
- ▶▶[세월호 참사500일] 진주 청소년 매월 세월호 플래쉬몹 한다
- ▶▶[필통실험실] 제조사별 점착메모지 비교분석
- ▶▶[맷강년맷반] 경해여고 2학년2반을 소개합니다
- ▶▶[반보드 enquete] 남, 여학교 설문조사
- ▶▶[FOCUS 한 컷] 남고와 여고 생활속 한 컷
- ▶▶[필통식식단] 화제의 요리, 우리가 만들면?
- ▶▶[동아리탐방] 전국 최강 전통의 동명고 배구부
- ▶▶[19금 파헤치기] 걸그룹 선정성 어디까지 보여줄까?
- ▶▶[틴틴이슈]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 ▶▶[현장취재] 진주시 행사 &공연 review
- ▶▶[숨은 진주를 찾아서] 진주의 또 다른 이름 강주, 강주연못
- ▶▶[풍문으로 들었소] “국민여러분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JOB을 잡아라] 꽃바람 공방 강선녀대표를 만나다
- ▶▶[우리 선생님] 삼현여고 국어과 김새봄선생님
- ▶▶[취재수첩] 양변기 VS 화변기, 당신의 선택은?
SNS 음란물 그만 보고 싶어요
청소년 시내버스요금 성인대비 70%
학원의 자유학기제 마케팅
- ▶▶[필통순찰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조사(5) 진주중,고편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필통네모로직] 지난호 정답자 발표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하얀피부과
하얀성형외과
하얀소아청소년과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15년 한 해도 아이쿵 진주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달의 인물] 나는 발명가다. 진주중앙고 3학년 서강민

세상을 이롭게,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공부에 열중하는 어느 고3 학생들과 달리 무언가를 만드는데 열중하는 조금은 특별한 학생이 있다. 그는 바로 진주 중앙고등학교에서 '발명왕'으로 불리는 3학년 서강민이다. 진주 중앙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서강민'이라는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는 고내외 각종대회 뿐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발명대회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발명왕' 진주 중앙고등학교 서강민 학생을 만나보았다.

Q. 발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하위권이다 보니까 진로를 요리와 과학 발명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중학교 때는 요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반 정도 하고 고민하다 2학년 때 선생님의 권유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라는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진로를 과학 발명으로 바꾸었습니다.

Q. 발명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어나?

저의 첫 작품인 자동차미세먼지 처리 배기관은 언론계 뉴스에서 미세먼지문제 때문에 각종 정장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보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듭니다.

Q. 발명하는 학생은 흔히 않은데,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동상을 탔었을 때 '우리학교에 이런 애가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죠. 그 후 발명과 관련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제는 저한테 특하나 기계적인 것이 궁금하면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저한테 와서 얘기도 해주기도 해요. 요즘은 제가 발명을 하면 신기해 하면서 관심도 가지구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발명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Q. 발명동아리, 특별해 보여요. 활동은 어떻게?

우리 주변에 발명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발명품을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고 예전의 저와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관심을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발명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발명 동아리는 공모일마다 회의를 하며 아이디어 구상, 스케치, 설계, 작품제작

을 반복하죠. 그리고 대회에도 나가니까. 이런 노력을 덕분에 동아리 개설 1년만에 경상남도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금상1, 은상2, 동상1개를 받았고 전국대회에서 10만 명 이상의 경쟁자들을 뚫고 금상에 입상하기도 했어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발명품이 있다면?

니트 우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하면서 주위 많은분들이 저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인지도 해주었고 또 처음으로 제게 1등상을 받도록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니트 우산은 제 이름으로 특허도 내게 되어서 특히 기억에 남아요.

Q. 만약 발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계속 어리석리 방향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공부에 하면서도 저한테 안 맞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억지로 해나갔을 것 같아요. 목적이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Q. 발명을 한다고 했을때나 지금, 부모님은 어떤 반응?

발명,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영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1등, 니트 우산〉



〈직접 설계 도면도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의 공부도 필요하더라〉

〈관심있는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발명 동아리도 만들어 열심히 활동합니다. 동아리 개설 1년만에 경상남도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금상1, 은상2, 동상1개를 받았고 전국대회에서 금상 입상〉

〈관심있는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발명 동아리도 만들어 열심히 활동합니다. 동아리 개설 1년만에 경상남도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금상1, 은상2, 동상1개를 받았고 전국대회에서 금상 입상〉

신이 창조했건, 탁월한 지적 존재가 설계했던 우연한 기회에 진화했던 간에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바다에서 단 세포로 시작해서 다세포로 분화되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단계를 거쳐 결국 육지로 진출한다. 그러므로 약 60조 개 정도 된다는 우리 인간의 세포는 바다에서 출발한 단세포가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세포벽, DNA, 단백질 등 생명의

기본 법칙을 공유한다. 그리고 바닷물과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생명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혈액을 포함한 우리의 체액은 바닷물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포타슘(K), 나트륨(Na), 칼슘(Ca), 마그네슘(Mg) 등 미네랄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네랄이온의 농도는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리 몸의 미네랄이온 농도는 0.9%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단계를 거쳐 결국 육지로 진출한다. 그러므로 약 60조 개 정도 된다는 우리 인간의 세포는 바다에서 출발한 단세포가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세포벽, DNA, 단백질 등 생명의



동화니까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몰입하기도 하고 또 계속 좋은 결과를 얻어오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요즘은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Q.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죠?

2학년 담임 박운준 선생님과 3학년 담임 문태호 선생님께 감사드리요. 발명은 다른 아이들은 하지 않는 활동이고 혼자하지 않으니 지도하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고3인데도 '공부'만을 강요하지 않고 저를 믿고 지원과 응원도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꼭 간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바로 공현철 선생님이에요. 저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발명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와서 공현철 선생님을 만난 건 제겐 정말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Q.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발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이란 없으니까 계속 노력하고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니죠. 남들이 가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있는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걷는 발자국이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Q. 앞으로 발명가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이루고 싶은 꿈?



〈2학년 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라는 대회에 입상, 첫 작품인 자동차미세먼지 처리 배기관〉

[취재: 정역진(진주중앙고2), 여가현(진주중앙고1)기자]

할 수가 없다. 만일 심한 더위나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사어나, 삼한음주, 배탈설사로 인한 탈수로 인해서 체액 중의 미네랄 이온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두통, 무력감, 식욕부진, 현기증 등이 생기고 심하면 혼수상태가 된다. 이럴 때 급히 미네랄 이온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스포츠 이온음료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각종 미네랄 이온들이 성분으로 들어 있다.

*** 이온음료는 일상생활(심한 더위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경우)· 격렬한 운동 후 탈진/사우나, 삼한음주, 배탈설사로 인한 탈수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네랄 이온을 공급하기 위한 스포츠 이온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역시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무력감, 피로감, 구토,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네랄이온은 로부터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도 문제가 된다. 뿐

[기고/ 최규민 (한빛약국 약사)]



성범죄 교사 46.5% 여전히 교단에... ‘숨방망이 처벌’ 때문

2009년 이후 피해자 중 40%가 학교 제자

서울의 A공립 고교에서 남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태가 드러난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46.5%는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120건(39.7%)의 피해자는 가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이었다.

피해자 유형별 분류를 보면, 재직학교 학생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89명), 재직학교 교원(59명), 타학교 학생(14명)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친밀을 성추행하고 학부모를 성희롱한 교사도 각 1명씩 있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폭력피해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가 176명, 성희롱 피해가 59명, 성매매 또는 성매수 피해가 20명 등 이었다. 교내 성범죄를 근절시키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성추행하고 학부모를 성희롱한 교사도 각 1명씩 있었다.

“아베로부터 일본을 지켜라” 교복 입은 고교생들 거리로

일본 고교생 안보법안 반대 시위...미래 맘대로 결정 말라



8월2일 오후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거리인 시부야에 '전쟁법안에 반대해 일어난 10대들' (T-ms SOWL)이 있었다. 이들은 '라인' 등으로 의견을 나누며 이날 일정을 정하고 큰 무리 없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한 고3 학생은 “나는 수험생이다. 친구들이(수험 준비를 안하고) 뭘 하고 있는나고 말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10대들의 움직임에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도쿄신문>은 1면에서 “고등학교생 5000여명이 안보법제의 ‘폐기’를 요구했다. 교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학부모로 정하지 말라’고 외쳤다. 안보법제에 대한 반대가 세대를 뛰어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라고 보도했다.

숙박업소 70% 청소년 방문시 신분증 검사 안해



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8월19일 밝혔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 126명 중 48%(41명)가 ‘숙박시설을 이용해 본 적 없다’고 답했고, 그 중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26%(16명)에 불과했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61명 중 42%(26명)는 ‘이성과 혼수했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전화 조사결과와 강릉·여수 등 5개 지역 숙박업소 50곳 중 20%(10곳)가 ‘청소년 혼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숙박업소 이용 청소년의 70%(43명)는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음주량을 묻는 질문에는 37.7%(23명)가 ‘평균 2~3병을 마셨다’고 답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30조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혼수 음주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오토바이 배달사고,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음식배달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 피해를 입은 재해·사망자 10명중 3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패스트푸드 섭취, 10년새 반토막

청소년들이 자다가도 땀샘만 맡으면 벌떡 일어나는 패스트푸드, 지나치게 탄력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친다. 고 알려진 패스트푸드, 한때 폭발적 인기를 끌던 패스트푸드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선 인기가 한풀 꺾였다.

최근 10년 사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패스트푸드 섭취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다소 높아져 10명 중 3명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25일 질병관리본부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습관 현황’ 보고서(윤성하 김한자 오경원에 따르면 2005~2014년 1~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0년 사이 절반 안팎으로 줄었다. 남학생은 2005년 31.2%에서 2014년 16.5%로, 같은 기간 여학생은 29.8%에서 14.5%로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정도는 다르지만 과일이나 채소 섭취 빈도 역시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최근 7일간 하루 1회 과일을 먹었다고 답한 남학생은 작년 조사에서 20.8%로 나타나 2005년의 32.0%보다 11.2%포인트나 감소했다. 여학생 역시 33.4%에서 23.4%로 10%포인트 줄었다. 마찬가지로 최근 7일간 1일 3회 이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알레르기 비염’



학생 3명 중 1명이 최근 12개월 내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수종 교수팀이 제주를 제외한 서울 등 전국의 초·중·고교생 1820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을 위한 피부단자시험을 실시한 결과 학생 29%(1784명) 중 518명에서 알레르기 비염 반응을 보였다. 눈물에 따르면 현재 알레르



상 채소 반찬을 섭취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6.6%와 14.5%로, 2005년의 18.4%와 15.4%보다 소폭 줄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은 지난 10년 사이 10명 중 3명 꼴을 유지했다. 여전히 10년동안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 습관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최근 7일간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작년 각각 28.2%와 28.9%로 조사돼 2005년의 26.4%, 28.0%보다 소폭 증가했다.

기 비염 유병률은 초등학생 32.2%(891명 중 289명), 중학생 25%(440명 중 11명), 고등학생 26.3%(453명 중 119명)로 집계됐다. 현재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것으로 진단 받은 가능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녀의 비염이 현재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될 위험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청소년이 생후 1년 내에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거나 생후 1년 내에 곰팡이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내에 곰팡이에 노출된 적이 있어도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 받을 가능성은 1.3~1.5배 높았다.

초등학생에게 현재 알레르기 비염을 갖게 하는 위험요인은 썩·돼지풀·잔디·오리나무·자작나무·유럽 집먼지진드기 등으로 확인됐다. 중학생에게는 돼지풀·집먼지진드기·썩 등이, 고등학생에선 딱지나무·유럽 집먼지진드기·환상명굴·미국 집먼지진드기 등이 위험요인이었다. 고양이나 개도 일부 학생에게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초등학생에게 현재 알레르기 비염을 갖게 하는 위험요인은 썩·돼지풀·잔디·오리나무·자작나무·유럽 집먼지진드기 등으로 확인됐다. 중학생에게는 돼지풀·집먼지진드기·썩 등이, 고등학생에선 딱지나무·유럽 집먼지진드기·환상명굴·미국 집먼지진드기 등이 위험요인이었다. 고양이나 개도 일부 학생에게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13.6%로 조사돼 아버지만 흡연자일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7만5000명을 대상으로 익명성 자기 기입식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작년 청소년 흡연율은 남학생 14.0%, 여학생 4.0% 등이었다. 청소년 흡연율은 친한 친구가 흡연자일 때 13.5%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6.9배나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흡연율은 일반고, 자율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특성고, 마이스터고 등 특성하게 고등학교에서 높았다. 일반계고의 흡연율은 10.9%로, 특성화고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4년간 10대 청소년 강력범죄 1만3800여건... 70% 성범죄

최근 4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 3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살인, 방화를 저지른 아이들이 1000명이 넘고, 3분의 2는 상법죄로 나타나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살인이 90건, 방화가 1029건으로 이 두 범죄가 1000건이 넘었으며, 강도가 3131건, 강간이 9596건 발생했다.

특히 강간 등 성범죄가 전체 강력범죄의 70%를 차지해 10대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4대 강력범죄 중 강도는 63% 감소한 반면, 살인은 2.8배 증가했으며, 강간·추행은 13% 증가, 방화는 6% 감소해 전체 강력범죄는 다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체고 김선진, 학생 근대5종경기대회 ‘금’

세계유소년대회 대표로 선발



경남체고 김선진(2년·사진)이 학생 근대5종 대회에서 개인 종합 1위를 차지했다. 8월20일 전남 해남고 우슬 근대5종경기장에서 끝난 ‘제17회 한국학생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김선진은 남자고등부 개인종합에서 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근대5종 고등부는 승마를 제외한 펜싱, 수영, 사격, 육상 등 4종목의 점수로 순위를 겨룬다. 김선진은 이번 대회 펜싱과 육상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993점으로 여유 있게 1위에 올랐다. 김선진은 송주령, 서미화와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3위에 입상했다. 한편 김선진은 오는 27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세계유소년근대5종대회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는 행운도 얻었다.

진주소방서, 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물 공모



경남 진주소방서는 오는 10월 6일까지 진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19안전뉴스 영상물(UCC)을 공모한다고 8월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 작품은 학교나 가정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7분 이내 뉴스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예선 심사를 거쳐 경상남도 자치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을 받은 팀은 오는 12월11일 개최되는 제9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 경남 대표로 참가하고 입상자는 교육부장관상, 국민

안전처장관상, EBS 교육방송사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나 학생은 진주소방서 예방교육팀(055-760-9243)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외동포 청소년 ‘독도는 우리땅’ 15개국 청소년, 진주 도심에서 플래시몹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관하는 ‘2015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초청연수(15~19일)’에 참여한 15개국 40여명의 학생들이 지난 8월18일 봉원중학교 학생 22명과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아 진주시 로데오거리에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며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을 실시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주와 산청을 방문한 재외동포 학생들은 전통문화체험, K-food, 지리산생태체험 등 다양한 농촌생활을 비롯해 진주봉원중학교 학생들과 일일학교체험 및 한국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에도 참여했다.

진주청소년경찰학교 개교



진주 옛 동부치안센터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체험 경찰학교가 들어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8월 11일 오전 진주시 상평동 옛 동부치안센터에서 경남경찰청 제2부장, 진주경찰서장,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주청소년경찰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남 진주청소년경찰학

교는 전국 29개소 중 하나로 5월 전국의 우수한 청소년 경찰학교 현지 답사를 거쳐 지난 6월 27일 동부치안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교했다. 경남에서는 김해중부경찰서에 이어 두번째다.

진명여중, 책 읽어주는 도서관 재능기부 봉사활동



경남과학고, 과학논술로 전국에 우뚝!

-제14회 전국학생 과학 논술대회 대상 외 4명의 개인 수상-



동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후원하는 2015년 제14회 전국학생 과학 논술대회에서 경남과학고등학교(교장 오세현)는 2학년 김석호 학생이 논술 부문 고등부 대상을, 2학년 고은리, 1학년 이재원 학생이 동상, 2학년 김영진, 1학년 이승영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전국학생 과학 논술대회는 청소년들이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과학적 표현력 향상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과학적 사고와 논

대곡중, 총동창회 및 지역사회 교육기부로 해외체험



동창회와 지역사회의 교육기부로 해외문화체험 학습을 세 번째 실시한 학교가 있어 화제다.

진주시 대곡면에 위치한 소규모 농촌학교인 대곡중학교가 그 주인공으로서 3학년 학생 26명은 무로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등지를 4박 5일(7.26~7.30) 동안 다녀왔다. 학생들은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를 중심으로 나라의 중대사와 사승공원, 교토의 청수사, 오사카의 카이유킨과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오사카 성 등을 관람하였다.

이번 해외문화 체험학습은 2013학년도부터 세 번째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토로하는 테마가 있는 살아있는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의 꿈과 세계를 향한 용지를 키워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체험학습 경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전혀 없고 경비 일체를 대곡중학교 동창회, 대곡면의 유관기관, 농공단지 기업인 등의 교육기부를 통해 모금한 돈으로 지원하였기에 훨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명여자중학교는 여름방학 중 지난 8월6일, 13일 2회에 걸쳐 도서관 희망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노인 요양병원에 동화구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동화 구연을 통해 학생들이 책 읽기에 즐거움을, 봉사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교도서관에서 두 달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온 “동화구연, 재미있게 책읽기”를 중심으로 노래, 리코더와 오카리나 연주, 미술 등 다양한 공연도 더해 외롭고 편찮으신 어르신들께 큰 기쁨이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기회가 되었다.

진주 대아중학교, 푸드치로 진로탐색 학습



진주 대아중학교는 지난 8월17일까지 10일 동안 여름방학을 맞아 ‘푸드치료를 통한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의 꿈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음식으로 꿈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낀점을 발표하는 등 요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진주중,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3위!!



지난 8월3일 오후 5시부터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제20회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4강전에서 상대팀에 아쉽게 패해 공동 3위를 차지한 진주중학교와 마산중앙중학교 축구 선수들이 상장과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 명신고, O&C심리센터와 MOU 체결



진주 명신고등학교는 O&C심리센터(소장 조경제)와 심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O&C심리센터는 경상대학교 산업 및 조직심리 연구실과 협력해 개소한 전문 심리 서비스센터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다양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아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



올해 처음 학교 특색교육의 하나로 대아고에서 실시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에 김정수, 최진수 선생님과 3학년 희망자 26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 한국기사문화관일원을 다녀왔다. 전 소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보며 임시 스토리를 잠시나마 내려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진주남중 씨름 시즌 4관왕 달성 기염

제29회 시·도 대항 장사씨름대회서도 우승



진주남중학교 씨름부(정용섭 부장, 정영배 감독)가 올 시즌 4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진주남중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경북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 중등부 단체전 결승전에서 서울의 방학중학교를 상대로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진주남중학교는 올 시즌 열린 5개(회정기대회, 증평인삼배대회, 천수권대회, 대통령기대회, 시도대항대회) 정규대회 중 4개(회정기대회, 증평인삼배대회, 대통령기대회, 시도대항대회)대회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강의 전력이라는 평가다.

진주남중학교는 단체전뿐만 아니라 앞서 열린 중등부 개인전에서 1위 1명(원신실), 2위 3명(김상현, 이상환, 유서욱), 3위 3명(이현진, 정종진, 박상현)이 입상했다.

진주동명중 경남학생창의력페스티벌 우승

‘2015년도 경남학생창의력 페스티벌’에서 진주동명중학교 “CEO(Clean Equipment Operator)팀(김덕유 김휘진 천찬호 허유찬, 지도교사 김미정)”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진주동명중은 지난 2013년도 경남창의력페스티벌에 2개 팀이 참가해 금상과 은상, 21세기 리더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엔 창의인재상 등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CEO팀’은 평소에도 교실 등을 청소하면서 애로로 느꼈던 청소 도구 개선에 대해 착안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 도구를 발명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부단한 노력 끝에 중등부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경남과학고, 일본 명문고교와 일곱 번째 학술교류



과학 영재교육의 요람 경남과학고등학교는 지난 8월4일~6일 1박 2일 동안 자매학교인 일본 오카야마치치노미야 고등학교와 학술교류 행사를 가졌다. 일본 오카야마치치노미야 고등학교의 학술교류는 이번이 일곱 번째로, 일본 측에서 자매학교인 오카야마치치노미야 고등학교에서 교장 Takashi Akaki를 포함한 교원 3명과 학생 15명이 경남과학고를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는 환영 인사와 앙고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경남과학고교육원 화석문화재 공동 견학, 그리고 학술교류 과제연구 발표 등의 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활동 일환으로 일본 대견도 수업도 진행하여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제연구 발표의 시간에는 그동안 경남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연구해 온 자연과학분야 여러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는 포스터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발표와 질의·응답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었다.

[FOCUS 한 킷 남고와 여고 생활속 한 킷 당신의 사물함은 무슨 용도?

♂ 남학생 사물함

D 남고 한 학생의 사물함. “이것은 정리한 것이다.” 총격적인 사물함 주인인 한마디. 이게 진정 학생의 사물함인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상태는 많이 심각해 보였다. 짝을 잃은 슬리퍼, 실어가는 책들과 프린터 물통, 정리정돈과는 이별한 지 꽤 오래돼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남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 여학생 사물함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뽀 뽀 뽀 해서 사물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었다.” K 여고 사물함 사진 주인공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봐도 ‘여학생 사물함이다.’ 심을 만큼 책과 공책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고 휴지와 화장품이 남는 공간을 메꿔주어 전체적으로 정돈된 모습이었다. 물론, 모든 여학생의 사물함이 이렇게 정돈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고가 남고보다 깨끗한 모습이었다. 모든 여고의 사물함이 이렇게 청결정돈하지는 않으나 남자들이여, 여고에 대한 환상은 접어주시길!

조심해!! 사물함 도난



사물함 안에 놔두었던 휴지, 책, 체육복, 돈 등을 잃어버린 적 있는가?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잃어버린 도난사건은 각 반당 2~3건 꼴로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책이나 돈 등 중요한 물품은 잘 수하길 바란다. 도둑을 잡으려면 학교에서 CCTV를 돌려야 하는 데 그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구역 도둑을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있는 행동도 필요하다. 사물함 고리에 번뜩 자물쇠 같은 것을 걸어두면 효과적임 ‘도난방지팀’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해보길 바란다.

[취재/정다현(경해여고), 박태연(대아고2)기자]

[필통순찰대] 학교위생정화구역 조사, 진주중, 진주고편

50미터 절대정화구역을 정확히 지킨 술집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PC방을 가기 위해선 꽤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 잠시 노래방을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우리들의 학교 주변은 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는가? 이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따라 학교 주변은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과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 말한다. 이는 200m내에서도 2가지로 나뉘는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절대 정화 구역 내는 학습 환경에 위배되는 모든 업소가 설치가 불가하다. 상대 정화 구역 내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학교 주변을 생각해 보자, 우리들의 학교 주변은 과연 맘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통에서 직접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정화 구역 내에 어떤 유해 환경이 있는지, 또 어떤 업소들이 들어서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있는지 사실을 순찰하듯 돌아보았다. 이번엔 필통순찰대가 출동한 곳은 시내에 위치한 진주중학교와 진주고등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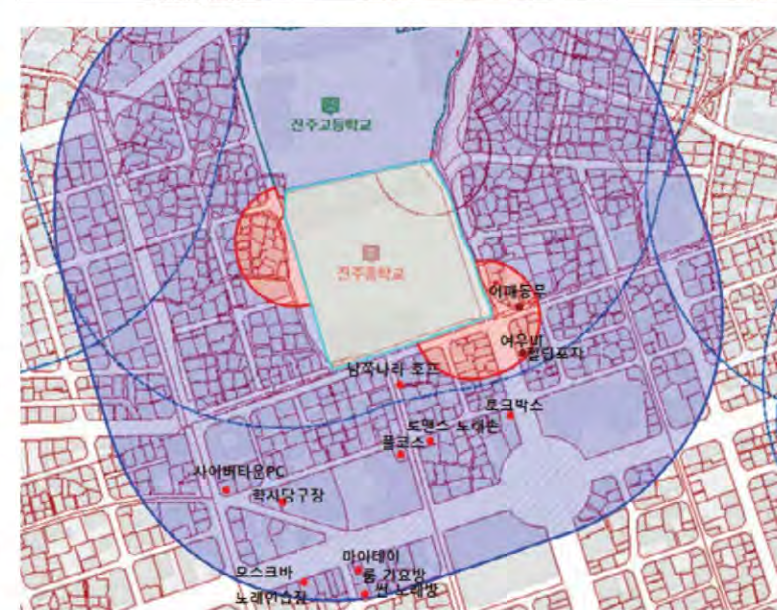
절대정화구역 50미터를 비웃듯 들어 선 술집들!!



적어도 학생들의 통학로는 제대로 된 정화구역이 되어야 한다

학교 주위를 조사를 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시내쪽이라 그런지 진주중, 진주고 주변에는 다른 가게에 비해 술집들이 유독 많았다. 보통 학교 주변에 보일법한 학원이나 문구점 같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확실히 시내에 위치한 학교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하지만 여기저기에 늘어선 술집들, 심지어 새로 개업을 위해 공사 중인 술집을 보면서 학교주변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주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나면 밤늦게 교문을 나선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려면 그 많은 술집을 지나야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은 분명 그 거리를 매일 같이 드나드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위생정화구역이란 것을 만들어 두었을 것이다. 적어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는 청소년 보호에 걸맞게 안전하고 건전하게 확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처음 순찰대가 도착한 곳은 진주 중학교 교문 앞 절대 정화 구역. 그런데 이게 뭔가? 교문에서 채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심상치 않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만 19세미만 출입 금지' 라는 표시가 딱하니 물어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술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거리를 재어 보았다.

50미터를 벗어난 상대정화구역이라 해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학교가 바로 보이고 교문과 50미터 조금 넘는 거리인데 무슨 근거로 허가가 되었는지 무척이나 의문스럽다.

분명 교문앞이고 50미터라는 절대정화구역안일 것 같았다. 그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확히 51미터, 가까운 나머지 두곳도 정문에서 54미터, 56미터 거리에 있었다. 50미터라는 법을 아주 정확히 벗어난 것이다.

더구나 이 세곳 중 한 곳은 바로 2층에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학원이 동시에 영업을 하고 있었다.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학원인 것이다.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주중, 진주고 정화구역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 업소

-유흥주점 : 어깨동무, 여우비, 힐링포차, 토코박스, 풀코스, 마이데이, 남쪽나라 호프
-단란주점 : 로앤즈 노래존, 모스크바 노래연습장, 풀 가요방, 썬노래방
-유해업소는 아니지만 사이버타운은 PC방, 학사 당구장이 위치해 있음.

편의점 담배구입, 신분증 확인은 철저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시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많으니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담배나 술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해 보았다. 진주중과 진주고 주위의 정화구역 내에는 2곳의 편의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2곳 모두 담배 구입을 위해 들어가서 당연한듯 담배를 주문해 보았다.

다행히도 편의점 2곳 모두 아주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해 왔다. 판매원로부터 평소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와 술 판매에 대해 교육받고 항상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취재/ 하준승(명신고1), 백혜인(진양고1) 기자]

[현장취재] 진주시 행사 & 공연 review

진주에서 영호남연극제 열려

다양한 연극 공연, 학생들 개학과 맞물려 아쉬움 남겨...



〈서울극단 황금가지의 초청작 '만두와 갈장'〉



〈금산 금빛마을도서관 작은극장 초청작 공연/ 사진제공, 극단현장〉

영호남연극제가 8월18일부터 23일까지 진주 현정아트홀과 푸른마을도서관처럼 진주 내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올해 16회를 맞는 영호남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 진주·구미·전주·순천지부가 주관하는 축제다. 지난 5월 '도시가 공연장이다. 문화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구미시에서 시작했다. 이번 주 진주에 이어 다음주 전주(25~30일), 다음달 순천(9~13일)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열린다.

다의 〈글러운타운〉, 순천 극단 드라마 스튜디오의 〈평범비 동파리와 명태〉, 서울극단 차이무의 〈바람난 삼대〉. 이들 작품은 영호남연극제를 여는 각 지역에서 추천해 국내에서 손꼽는 것들이다. 작은극장 초청작은 다양한 색깔의 독립공연에 술가 10명이 저마다 작품을 선보였다. 국립극단의 '한여름 밤의 작은 극장'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도 포함됐다.

진주에서 연극 공연을 접하기는 쉽지 않다. 매년 열리는 영호남연극제지만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연극제 기간이 방학이 끝난 학교들이 많아 학생들에게는 아쉬움이 큰 행사가 되어 버렸다.

청소년 모의 UN대회 MUNNEO



모의 UN대회인 MUNNEO가 8월9일부터 11일까지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에서 열렸다.

MUNNEO(신평등 모의 UN대회)는 Model United Nations New Equal Opportunity의 약자다. 이 대회는 실제 UN회의를 본떠서 청소년들에게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다.

참가자들은 안전보장이사회나 세계보건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 중 한 이사회에 속한 어느 한 나라의 대사로서 각자 맡은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며 주어진 의제에 대해 토의하면서 국제적인 시각과 사고를 넓히게 된다.

올해 주어진 각 이사회 의제는 안전보

북 아트 기획전 열려

책들이 속삭이는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미술 사조의 새로운 장르인 북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진주에서 열렸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8월4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북 아트 기획전'을 마련했다. 북 아트(Book art)는 용어 그대로 '책 + 예술의 만남'을 뜻한다. 이번 전시는 매년 국내외 북 아트 전시로 꾸준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국내 북 아트 작가들로 이루어진 '코리아북아트 협회'의 정기 순회전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모든 책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게 마련이다. 그래서 북 아트 기획전에서는 책 속에 숨겨진 이야기

들을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책 페이지를 공개하여 팝업북으로 재탄생 시키는가 하면 아예 신발 모양으로 바꾸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쓸모없어 보이는 옛날 책들도 디자인 한 뒤 액자에 걸어놓아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보기만 하지 않고 체험도 할 수 있었다. 직접 3면 팝업북을 만들 수 있고 마블링 시연과 함께 수제 문양지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기도 했다. 북아트가 책에 친숙해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호응이 컸던 전시회였다.

진주같은 청소년 언론캠프 열려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며 진주시 소년 언론캠프가 지난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언론

과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진주나 사천지역의 17~19세 청소년이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지역의 청소년신문 필통기자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5일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언론인의 특강과 매체별 실습으로 진행된 진주같은 청소년 캠프는 미디어와 생활, 지역 신문, 지역 방송, 공동체 라디오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언론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었다.

2015년 상반기 청소년동아리발표회



보였던 댄스 동아리 '달레앙트'가 아이디어상, 팀원 간의 조화로운 모습 이 인상적이었던 댄스 동아리 '인디에어', '피플파킹'이 단합상을, 화려하고 절도 있는 공연을 펼친 댄스 동아리 'R·O·V'가 파포연스상을 각각 수상했다.

진주시청소년수련관에는 현재 댄스, 밴드, 미술 등 6개 분야 32개 동아리 약 500명의 청소년들이 등록돼 이번 상반기 동아리 성과발표회 뿐 만 아니라 동아리 역량강화 리더십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진주지역 많은 고등학교 동아리들의 끼와 재능을 볼 수 있는 청소년동아리발표회가 2015년 8월 8일(토)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댄스, 밴드, 미술 등 청소년수련관 소속 12개 동아리들이 올 해 상반기동안 방과 후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갈고닦은 솜씨로 열린 무대경연을 펼쳐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무대경연 심사결과,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은 댄스 동아리 '블랙업'과 밴드 동아리 '악사'가 인기상을, 특목 팀은 아이디어와 재치가 돋

진주 재즈콘서트 박수 갈채

한 여름 밤, 재즈 리듬에 취하다.



7월 24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진주 재즈 콘서트'가 열렸다. 문화공연이 부족했던 진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열린 재즈 콘서트였으며, 그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오재철 빅밴드'가 연주했으며 거기에 경력 10년차 김현준 재즈 비평가의 달백한 설명이 더해져 재즈 초심자들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오재철 빅밴드는 40대가 익숙한 첼로 수사를 ost Peter gun으로 스타트를 끊었으며 moon river, I don't mean a thing 등을 연주하여 다양한 편곡을 선보였다. 또한 중반에 게스트로 초청된 김도현도 참여하여 깔끔한 기교와 감미로운 목소리를 선보였다. 이에 매료된 관객들은 곡이 끝날 때 마다 열광적인 박수로 화답했다.

[취재/ 정소영(삼천여고2), 김의진(경해고1)기자]



[필통시식단] 화제의 요리, 우리가 만들면?

치즈듬풍토스트,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송내용 그대로 재연해 봅니다.

◎ 재료는 이렇게 구입했어요



◀ 버터, 설탕, 식빵, 건과류, 각종치즈(모짜렐라, 체다 등)

1



◀ 건과류를 부순다.

2



설탕과 물을 3:2로 끓이며 시럽을 만든다. ▶

3



◀ 건과류를 시럽에 넣어 졸인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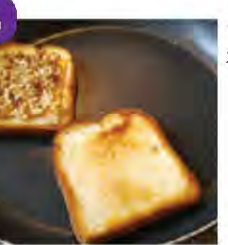
◀ 버터를 두른 팬에 식빵을 굽는다.

5



체다치즈-건과류-피자치즈(모짜렐라 치즈) 순으로 식빵에 올린다. ▶

6



◀ 빵을 덮고 열로 치즈를 녹인다.

7



완성 : 식빵을 반으로 잘라 접시에 담는다. ▶

필통이 선택한 화제의 요리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김풍세프의 치즈듬풍토스트



이번에 만들 요리는 <냉장고를 부탁해> 21회 김기방편에 방영된 '치즈듬풍토스트'이다. 이 토스트는 방송 직후 일반 토스트와는 달리 치즈와 건과류를 넣어 달달함과 고소함을 극대화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함께 출연했던 이연복세프는 라디오에서 이 요리가 가장 맛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REVEIW 치즈듬풍토스트 과연?

치즈듬풍토스트를 그대로 재연해 보았다. 과연 그 맛을 어떨까? 물론 전문적인 셰프가 요리한 음식과 똑같은 맛과 풍미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 나름 마작가를 자임하는 몇몇 필통기자단이 치즈듬풍토스트의 맛을 평가해 본다.

정지윤기자(사대부고2)

입에 넣은 후 씹고있을 때 중간 정도까지는 맛있다. 하지만 그 후로는 턱이 아파서 어렵게 먹기에는 힘들다. 건과류 시럽 맛이 강해서 치즈를 듬뿍 넣어도 치즈 맛이 많이 나지 않는다. 배고플 때 간단한 간식거리로는 괜찮을 것 같다.

고유리기자(삼현여고2)

치즈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는 것 같다. 건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기 힘들 것 같다. 빵은 바삭하게 구워져서 맛있었고 건과류 소스는 호떡믹스 비슷한 맛이 났다.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있었는데, 다 먹고 나니 느끼한 감이 없지않아 있어 탄산이랑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신현솔기자(삼현여고2)

식빵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서 좋았는데 그만큼 씹기가 힘들었다. 건과류와 시럽의 맛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 단 편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치즈 맛이 나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기존의 토스트들과는 다른 맛을 느껴서 좋았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

하은서기자(진주여고2)

생각했던 것 보다 재료를끼리 잘 어울리고 맛있었다. 치즈같은 경우에는 맛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좋았다. 시럽이 너무 달아서 반 조각 이상 먹기는 힘든 감이 있다. 건과류가 인조음이라서 짭짤한 편이었는데, 일반 건과류로 해야 더 맛있을 것 같다.

정소영기자(삼현여고2)

소량으로 만들어 먹기에는 좋은 것 같다. 치즈를 녹이는 시간이 꽤 걸려서 여러 개 만들기는 힘들 듯 싶다. 건과류와 치즈의 식감이 어울려져서 좋았고, 단 음식이 당길 때 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치즈 때문에 저로 비가 많이 나가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해 먹기 어려울 것 같다.

황주일기자(진주기공2)

굉장히 맛있었지만 슬라이스치즈가 부족해서 아쉽다. 치즈만 좀 더 많았더라면 오늘 먹었던 것 보다 맛이 좋을 것 같다.

박규태기자(대이고2)

전체적으로 맛있었는데 건과류를 좀 더 잘게 으개서 만들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치즈는 굳이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 까나해결 보다는 간식거리에 적합한 것 같다.

[취재/ 정소영(삼현여고2), 하은서(진주여고2)기자]

[세월호 참사 500일]

진주 청소년 매월 세월호 플래쉬몹 한다

필통기자단,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 6시 대안동 차없는거리

(사)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의 학생기자단은 매월 세월호 플래쉬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 7시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다. 필통 학생기자단은 지난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이후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발표, 유가족들의 식발과 계속 되는 싸움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4월부터 필통기자단은 진주청소년들에게 노란뱃지 달기 운동을 제

안했고 어른들의 후원을 받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노란뱃지를 나눠주기로 했다. 그후에는 매월 한번씩이라도, 토요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진주시내 차없는 거리에서 플래쉬몹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몇 명이 되던 시작해 보고 학교 동아리들이나 청소년단체에 함께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이미 진주YWCA의 청소년 동아리 '와이틴' 이 동참하기로 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겠

다고 하는 것은 작은 실천이 함께 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역 청소년들이 노란 뱃지를 달고 토요일 시간이 되면 플래쉬몹에 참여 하는 이런 작은 활동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알릴거 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 6시면 차없는거리에서는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라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 필통 진주청소년 노란뱃지를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단체 : 극단현창/ 문화센터 새노래 / 진주강이/ 어린이도서관연구회
개인 : 장우철/박민정/장상화/김현기/이미경/황규민외/원지연
서성룡/김미리/권성표/최영민/정현민



진주 청소년 노란뱃지 달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8월 25일 현재 6000개, 개인과 단체 후원 이어져

세월호 1주기가 되는 지난 4월16일부터 진주지역 청소년들이 세월호 진실을 요구하는 작은 날개짓을 시작했다. 바로 필통 학생기자단이 제안한 '노란뱃지달기 운동' 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진상규명은 아직까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른채 거리에서 식발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 앞에 1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죄책감, 진실

과 거리가 먼 언론들을 불러 들고 캠프에 가는 모습에 많은 청소년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진주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노란뱃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자고 제안하게 되었다. 일상속에서도 세월호를 잊지 말고,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어른들에게 말해주자는 것이다.

필통에서는 곧바로 관심있는 지역단체나

개인들에게 뱃지제작 비용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고 여러곳에서 학생들의 작은 실천에 동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 결과 8월25일 현재 6000개의 뱃지가 진주지역 학생들에게 노란 희망이 되어 날개짓을 하고 있다. 필통에서는 세월호 진실요구 노란뱃지 달기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다. 진주시역 청소년들은 노란날개짓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4월 16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진주에서도 매월 세월호 촛불집회 열린다

세월호 진실의 길을 걷다 9월 5일 저녁 7시 대안동 차없는거리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주시민들의 촛불집회가 매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세월호 진실의 길을 걷다' 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그동안 진주지역에서 세월호 관련 1인 시위와 개인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거나 관심을 가져왔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세월호 진실찾기 진주시민 모임' 에서 주최한다. 주최측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일 년이 넘었으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게 없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호소는 계속되고 있지만 내용 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통과 등 진실 접근의 길은 멀지만 한 현실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라도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집회의 취지와 목적을 말한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 집회는 9월에도 어김없이 첫째주 9월5일(토)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에서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을 함께 한다.

[지역이슈]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성인 1만원, 청소년 5천원

진주남강유등축제 1만원 받고 뭐가 바뀌나?

올해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보기 위해서는 1만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당초 진주성 안에만 유료화하는 것으로는 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남강에 떠 있는 유등을 보는 것도 입장료를 내야하는 행사장 전 구간 유료화로 결정됐다.

행사장 전구간 유료화... 매표소(출입구) 8곳 설치



이렇게 되면서 축제 유료화 구간은 진주성을 포괄해 천수교부터 망정동 둔치와 천수교까지로 정해졌다. 때문에 이 구간에는 펜스가 설치된다.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은 펜스와 함께 성벽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진주교와 천수교에는 안전망이 설치된다. 또 축제장 매표소 출입

구에는 홍살문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의 행사계획서(안)를 보면 출입문은 모두 8곳이다. 진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 3곳의 입구와 함께 진주교와 천수교 남단과 북단 각 2곳, 그리고 망정동 분수광장이다. 1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축제장에 들어가면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부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체험행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금액은 <소망동 달기 체험>은 1개당 1만원, <유등픽업기 체험>은 1개당 3천원, <유람선 체험>은 주간 4천원, 야간 5천원이다.

유료화 따른 행사 공간 앞찬구성... 만족도는?

유료화로 결정됐는데 지난해 축제와 달라진게 없다면 과연 1만원을 내고 들어갈까? 시와 재단은 세계 5대 축제 진입을 위해 불거리를 다양하게 하고 등을 고 급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행사 11개와 체험참여마당 8개, 부대행사 5개 등 총 24개 행사가 열린다. 흥사업비는 41억 7천 5백만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등을 남강에 띄울 때 사용한 부표를 천한경소재인 검은색 끈(ponoon)으로 교체한다. 걸림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올해 축제는 주제는 '1592 진주성'이다. 길러린틴츠는 1592년 제1차 진주성 전투를 재현한 '진주대첩'으로 진주성 안에 설치된다. 높이 3m, 길이 50m의 대형 성벽에 전투장면을 연출한다. 또 김시민장군과 노개 등 인물을 스토리텔링해 등으로 제작하고 진주소싸움도 등으로 만드는 등 그 어느해보다 다양한 주제의 등을 선보인다. LED대나무술과 디지털 가상터널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주성 축제를 배경으로 한 수상멀티미디어불꽃쇼(10월 6.9일, 20시)



를 확대하는 한편 진주성에서는 매일 저녁 유등을 주제로 마당극이 열린다. 또 한 길거리공연인 버스킹과 유등거리 퍼포먼스, 무중력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고 진주유등의 역사와 유등을 소개하는 유등해설사가 배치돼 운영된다.

뾰족한 대책 없는 교통체증 문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축제장 주변 교통 문제는 행사장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 협에 가입하기로 했다.

시와 재단은 셔틀버스 운영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행사장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주변 교통체

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마다 나오는 교통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외지 관광객들이 최대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시는 축제기간 중 금.토.일은 천수교와 망정동치 앞 도로, 진주교 구간 차량의 전면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관람객 안전 문제는 행사장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 협에 가입하기로 했다.

[제휴/ 단디뉴스
www.dandnews.com]

[숨은 진주를 찾아서]

진주의 또 다른 이름 강주, 강주연못을 가다

이팝나무 그늘 아래서 강주연못 가득한 연꽃을 바라보다



무더운 8월, 따가운 햇살과 폭풍 썰는 더운 날씨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야외활동을 꺼려하는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 한창을 맞고 있는 아름다운 꽃이 있다. 바로 꽃 중에 군자라 불리는 '연꽃'이다. 아마 우리에게 연꽃은 그렇게 친숙한 꽃은 아닐 것이다. 피는 장소도 까다롭고 주변에서도 쉽게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진주에 이런 신비스런 연꽃을 많이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숨은 진주'가 있다.

바로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위치한 강주연못이다. 캠퍼스로 둘러친 것마냥 동그란 연못을 뱅 두른 산책로는 발길마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많은 나무와 함께 숨쉬며 탁 트인 강주연못에 빼곡히 피어있는 연꽃을 보면 아마도 저절로 탄성이 나올 것이다. 청소년들은 모두 개학을 했으니 주말을 이용해 강주연못과 연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더위속에 막 막한 PC방이 더 시원할진 모르겠지만 친구들과의 강주연못 한바퀴는

그 시원함 이상의 무엇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한다.

시내버스 133번이나 150번을 타고 강남마을 정류장에서 내리면 강주연못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다. 그 표지판을 따라 걸으면 연꽃 밭이 펼쳐진 강주연못을 만날 수 있다. 진주의 또 다른 이름 강주를 기억하며 주말 '강주연못' 버스를 타보자.

연꽃을 가까이서



처음 강주연못에 들어가면 탁 트인 연꽃 밭이 한 눈에 들어온다. 강주연못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연꽃 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나무로 된 다리가 있다. 이 나무다리를 따라 걸으면 아름다운 연꽃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길을 따라 걸다보면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 정자갈이 생긴 곳도 있다.

나무 길 곳곳에는 연꽃에 대한 설명과 강주연못에 서식하는 식물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는 아기자기한 표지판들이 있다.

연못을 둘러싼 산책로



강주연못을 들어서는 입구부터 시작해 원을 그리며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연못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다. 산책길 양 옆으로 늘어선 나무들 덕에 햇살을 피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깨알 쉼터



아무리 그늘이 있다 해도 더운 여름 날씨에 걸다보면 지치기 마련일 것이다. 강주연못에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연못 초입에는 피로한 몸을 풀어줄 자판 길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산책길을 따라 걸어 가다보면 중간쯤에는 편하게 앉아�� 수 있는 넓은 정자도 마련되어 있다. 연못 곳곳에 방문객들을 위한 소소한 배려가 느껴지는 시설들이 많다.

강주연못, 이것만은 알아두자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이래 고려시대까지 강주(康州)라고 불렸었고, 고려시대에는 지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지금의 강주연못이 바로 강주진영(鎭營)이 설치되었던 자리라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 강주진영터는 연밭으로 바뀌었는데 조선 말기 순조 때의 기록에 의하면 연못의 둘레는 4,450척이며, 연못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눈은 840마지(7)였다고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는 강주연못의 관개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소유지로 새롭게 조성하여 농업관개용수로 활용하였고, 해방 후에는 연못에 가득한 연꽃으로 인해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진주 지역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애용되었다.

현재 연못의 둘레는 약 600m, 면적은 약 1만 8,000㎡로, 2005년 7월 연못 일대에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생태공원의 부지면적은 4만 1,760㎡이며, 나무로 만든 관찰 데크와 지압보도·정자·벤치 등을 비롯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연못에는 연꽃뿐 아니라 미루·물달개비·사마귀풀·생이가래 등의 수생식물이 자생하고, 각종 곤충과 새가 서식한다.



[취재/하은(진주여자고)·박규태(대이고2)기자]

학원의 자유학기제 마케팅!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활성화 정책인가요?

올해부터 진주에서도 중학교는 대부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내년부턴 모든 중학교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한다. 한 학기동안 시험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동안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현실적으로 이런 자유학기제는 1학년 2

학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름방학과 2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를 역행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학원들이다. 학원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유학기제 대비에 관련된 현수막이 붙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러 유명한 학원에서는 이미 자유학기제를 다른 입시설명회기 열리며 "자유학기제+여름방학", "영어수학 완성의 최고의 기회" 등의 광고문구들은 학부모의 마음을 흔든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지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또한 자유 학기제가 취지는 좋지만 학습능력과 학습의욕의 저하 등을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그에 따른 추가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그대로이고 이전 중학교부터 입시준비를 한 다해도 과언이 아닌 분위기에서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공부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학생들 또한 입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부담 없이 지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걸음로는 시험도 없고 좀 쉬면서 공부보다는 자기진로 고민과 다양한 체험을 하라고 해 놓고 오히려 부족한 공부를 더 하고 떨어진 학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로 이용된다면 도대체 자유학기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학원들의 발 빠른 자유학기제 마케팅을 보고 있으니 조금은 호란스럽다. 결국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시간이란 것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 부족하지

2학기 시험범위가 너무해요!

방학 보충수업 시험범위에 포함, 학생들 불만 높아

폭풍 썰는 8월 한여름,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전국 곳곳에 울리지 않는 곳이 없다. 대한민국을 가르켜 '대프리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다. 매년 더워지는 여름!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를 향한 발걸음은 평소때와 다름이 없다. 등굣길만으로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눈꺼풀은 의도치 않게 닫힌다. 이런 학생들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뿜으신다. 바로 보충수업 교재내용이 2학기 중간고사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결정에도 이유는 있다. 8월 중순 개학부터 10월 초에 치러질 중간고사 기간까지 과목별로 새로운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기간은 고작 한 달여에 불과하다.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면 문제 출제범위 자체가 부족함이 사실이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여름방학 보충교재 내용을 복습차원 겸 시험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학생들에게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의 경우 방학기간 보충수업은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총 4과목을 기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선행학습법금지로 인해 2학기 예습을 할 수 없

게 되자 학교는 1학기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단기복습 보충교재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렇기에 여름방학동안 복습을 시행하는 것이다. 2학기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1학기 내용까지 시험범위에 포함된다라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보충수업으로 복습을 넘어 왜 굳이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까지 출제를 할까? 2학기 진도에 맞게 문제를 출제하면 뭘 텐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실현되고 한 선생님은 "시험 범위가 적더라도 선생님이 출제하는 문제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험문제가 어려워진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나쁘지 않다." 라고 말했다. 시험범위가 넓다면 중요한 내용

방학에도 학교를 꼭 가야 하나요?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두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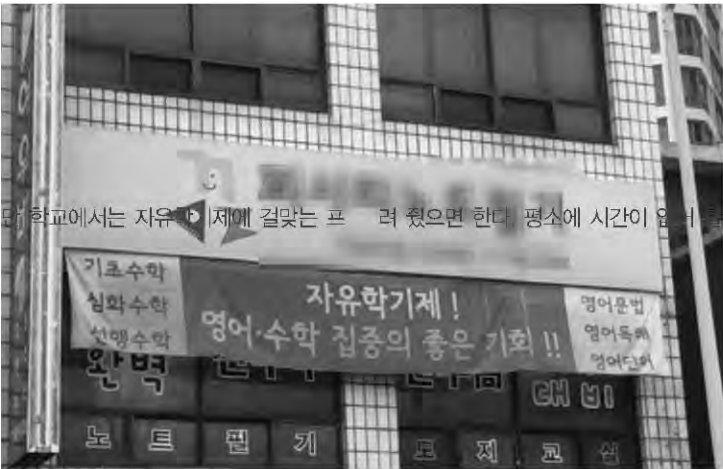
방학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일정한 기간 휴학을 건전한 발달을 위한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수업을 쉬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자율보충'이라는 명목아래에 방학기간동안 '반강제적'으로 학교를 나와야한다. 이처럼 방학전과 다를 바가 없는 말만 방학인 지금의 방학은, 방학이라고 할 수 없다. 폭풍 썰는 더위를 뚫고 아침 일찍부터 교복을 입고 가장 더운 12시에 하교해야 되는 그런 방학보충에는 여러가지 진실들이 숨어있다.

한 학생이 선생님께 "방학보충을 꼭 해야 하나요?"는 질문을 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대학갈생각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라는 단호한 대답이었다. 방학보충을 안한다고 적어내면 담임선생님께서서 따로 불러내 이력서면 이야기를 해신다. 물론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빠주시는 선생님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니라고 한다. 대학을 가는 것

과 방학에 보충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선생님들이 이렇게나 방학보충에 강제적이실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방학 보충중에 대부분의 학교가 4교시까지 수업한다. 4교시까지 수업을 할 때에 문과는 영어와 문학을 주로하고 이과와 과학과 수학을 중점으로 수업을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방학 수업을 듣고 가장 더운 12시에 하교해야 되는 그런 방학보충에는 여러가지 진실들이 숨어있다.

그러나 자기 의지가 아닌 강제보충수업이 효과적일 수 없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 교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로 방학을 보내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음껏 놀아보는 것도 청소년시기의 우리 학생들만의 특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강제보충수업, 아간 자율학습학교와 같은 일은 없다.

방학 보충은 의무적으로 시행되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로그램을 진행한다. 시험도 없다. 주어진 시간을 입시공부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할지 자신만의 의미있는 자유학기로 만들자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이다.

수 없었던 야외활동이나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체험과 같은 활동들이 학교생활에 의미를 불어 넣는 진정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준승(명신고1)기자]



만 출제하면 되지만 시험범위가 좁다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 심화적인 내용을 출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학생들은 이해는 하지만 몇 배로 넓어진 듯한 시험범위에 대한 불만은 쉬이 가라지지 않는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수행평가도 봉사활동이다. 또 각종 시험과 학원등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은 힘들고 지쳐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불만을 조심이라도 해소시켜보는 것은 아닐까?

[고유리(삼현여고2)기자]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에 학생들은 민감

연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숨은 진주, 비실 마을

많이 알려진 강주연못 말고도 진주에서 연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다. 바로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에 위치한 '비실 마을'이다. 마을 안에 있는 '용호 정원'은 강주연못에 비해 크기는 작은 곳이지만 연꽃에 둘러싸인 팔각정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정자로로 가기 위해서는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비실마을 용호정원>



<연꽃향기 가득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용호정원 바깥 길의 표지판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연꽃으로 뒤덮인 농촌휴양체험마을을 볼 수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가에 핀 많은 꽃들을 볼 수 있다.

연꽃의 개화 시기는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이 때 비실 마을을 방문한다면 만개한 연꽃을 만날 수 있다. 비실마을을 연꽃 밭에는 연꽃 외에도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마을 길 곳곳에는 풍경을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정각도 있다.

이렇듯 지금의 방학에 이루어지는 강제보충수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과 학업효율에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신윤지(사대부고2)기자]



청소년 시내버스요금 성인대비 70%

등하교도 교육의 일부분, 교통비 너무 비싸다

2013년 1월 1일 이후로 2년 7개월 만인 2015년 8월 1일부터 진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다. 일반인은 교통카드 요금이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 현금 요금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고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 요금이 800원에서 850원으로 50원 인상되었다. 청소년 현금 요금과 어린이 요금은 변동 사항이 없다.

시내버스 요금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남 노 신문사는 버스요금의 인상 이유는 유류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버스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교통편의 증진

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대중교통, 과연 요금 인상 후 변화가 있었을까? 진주중앙고등학교 유모양은 ‘시내버스 요금 상승에 따른 서비스 개선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시내버스가 그런 공약을 내세웠냐?’며 ‘버스운전자사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느끼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남 예술 고등학교 김모양 또한 ‘가끔 버스 도착시간을 볼 수 있는 기계가 꺼져 있기도 하고 버스 시간이 모여 있기도 하며 심지어 학교 앞에는 버스가 잘 오지 않는 등 그 불편함은 여전히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며 ‘왜 그들의 경영난으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을 더 나은 서비스라는 자키지도 않을 말로 바꾸어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당황스

럽다고 했다.

또한 개양중학교 여모학생은 ‘청소년들의 시내버스 요금이 이렇게 오르다가는 금방 성인 요금을 따라 잡겠다.’며 ‘일주일에도 교통비만 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보니 이제는 학교 다니다가 부담스럽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버스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여모학생과 같이 버스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진주중앙고등학교 정모양 역시 ‘버스는 거의 모든 학생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버스요금이 오르다 보니 옮겨 겨자 먹기로 버스요금을 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며 ‘학생으로서 학교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 유가 다른 것도 아닌 교통비 때문인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내

진주시내버스 요금이 2015년 8월 1일부터 요금이 조정됩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분		현행		조정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일반 버스	일반	1,100	1,200	1,250	1,300
	청소년	800	900	850	900
	어린이	600	650	600	650

(단위: 원)

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 간다. 학교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등,하교도 교육의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대비 70% 수준의 청소년 버스비 비싸도 너무 비싸다.

[여가현(진주중앙고1)기자]

[찬반토론] 사형제도폐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형제폐지법안 발의,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사형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본국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이후 무려 여섯 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편문을 넘지 못하고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존속될지 아니면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없음은 증명된 사실 법은 최소한,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

사형이란,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도 하는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현재 비공식적 사형제도 폐지국기로 알려져 있다.

찬성

VS

반대

우선, 폐지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게 큰 처벌이 있어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형벌의 효과 중에서는 극악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범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는 비유하자면 담배를 많이 피서 시커먼 사람의 폐를 공익광고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극단적인 상황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명한 사형반대론자인 철학자 알베르 카뮈 또한 이 주장에 “사형이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낮낮에 콩고드 광장의 처형대 위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전 국민에게 그것을 생중계해야 한다. 또한 사형을 집행당한 이후의 신체 상태를 묘사하는 증언들과 의학 보고서들을 각 학교들과 대학교에서 읽게 하여야 한다.”고 말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뀌기는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 1998년과 2002년, 유엔의 의의를 받아 ‘사형제도와 실인범죄율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로저 루드 교수는 국가들이 사형제도에 덜 의존하여도 범죄율이 갑자기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서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전 10만 명당 살인 확률은 3.09로 매우 높았으나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도 10만 명당 살인 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사형제도의 폐지와 범죄율이 큰 관련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012년, 전직 교도관이었던 ‘고종철’ 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형은 사형수, 교도관, 유족을 망친다고 전했다. 사형수는 숙죄할 기회와 하나의 생명을 잃게 된다. 교도관은 그 사형수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죄책감에 평생 동안 시달린다. 유족은 놀라게도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 허무함을 느끼며, 또한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오판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한다. 법은 최소한이라고 했다. 법과 공권력은 단 1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이고 그것을 파괴할만큼 더 높은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강형민(진주고1)기자]

Discussion

사형제도 유지 여론이 더 높아... 흉악범죄 예방효과 있다. 억울한 희생자는 제도로 보완할 수 있어...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사형이 재집행 된다 해도 사형 횟수가 극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로 형량을 낮춘 후, 가석방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항소로 무기징역까지 낮춘다 해도 무기징역이 최후형벌이 되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째, 사형제의 폐지는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과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권리의 기본인 생명을 잃게 되는 치명적 인권침해를 받게 된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종신형을 받은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수감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수감자 본인이 노력을 통해 일정 수준 자신의 숙식비용을 충당하지만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하다. 의식이나 유가족에 대한 예우조차 쉽지 않은 한국에 종범범죄자들의 뒷바라지를 국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범죄예방 효과이다. 혹자는 사형제도 유지가 강력범죄 예방이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언제 사형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죽음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본 다른 수감자들은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실감하게 되고 그에 따른 예방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국민들의 다수가 사형제 존속을 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7월 7~9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63%가 사형제도 유지를 지지했고, 폐지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특정 법·규정의 제정과 정책의 시행에 있어 국제적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다.

사형제도 유지로 우려되는 부분은 억울한 사형제도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입증과정을 마련하면 된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생명을 다루는 형이라 비난이 일 것이며,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지만 사형은 현대 사회를 보면 필요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병합한 증거와 수사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도적 완성도 또한 높아야 하며 무책임한 사형선고기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승훈(진주중앙고1)기자]

사형은 생명을 건드리는 위험한 제도이다. 허나 국악 범죄자가 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멸망이 싫어있다고 생각해 보자. 애초에 법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동아리탐방] 전국 최강 전통의 동명고 배구부

전국체전 금메달로 최고를 증명할게요

배구는 토스와 리시브, 스파이크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두 팀 간에 네트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구기 스포츠다. 손발력, 민첩성, 근지구력을 비롯한 팀워크 등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니만큼 함께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주동명고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성이 자자한 전국최강 배구팀을 가지고 있다. 코트위에서 한 몸처럼 집중하며 날아오르고 몸을 날리는 배구 선수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박수가 자동으로 나온다. 얼마지나지 않아 태극마크를 달고 또는 프로 무대에서 우리나라 배구를 이끌어 갈 동명고 배구부를 찾았다. 많은 선수들중 라이트와 레프트를 맡고있는 1학년 천홍재, 라이트 주공격수를 맡고 있는 2학년 정성규, 그리고 세터를 맡고있는 주장인 3학년 김지승 선수를 만나 동명고 배구부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Q. 배구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명고등학교 배구부 주장 을 맡고 있는 김지승입니다. 저희 배구부는 다른 학교 보다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적인 운동보다는 서

Q. 학교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나요?

딱히 신문에 자랑할만큼은 아닌 것 같아 금 안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레 팀워크도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연습을 해야겠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니 그만큼 서로 더 많이 격려해줄 수 있다는 점이 저희 배구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Q. 배구부원을 뽑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구부원들은 대부분 감독님이 주로 뽑고 있습니다. 뽑는 기준은 초등학교 때 배구를 했거나 신체적으로 신장이 큰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구가 키가 크면 유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키 큰 사람을 뽑는 것이 저희 팀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

고 저희가 명문이다보니 타지역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선수가 많긴 하지만 주로 경남 지역에서 뽑고 있어요.

Q. 연습방법과 연습량은 어떻게 되나요?

연습량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연습량이 적은 대신 연습할 때 집중해서 힘들게 연습하는 편이에요. 순서는 처음에는 기본기로 몸을 풀고 그 다음에는 공격위주로 연습한 다음 시스템, 블로킹 연습, 이런 식으로 진행 되고 있어요. 시간은 오전, 오후에 3시간 정



〈동명고는 전국대회 우승등 각종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교묘명동 배구단이다〉



〈세터를 맡고있는 배구부 주장 3학년 김지승 선수〉



〈라이트 주공격수를 맡고 있는 2학년 정성규 선수〉



〈한진원선수가 코트안으로 떨어지는 볼을 다이빙하면서 실려내고 있다〉



〈경기중 작전다임을 갖는 하중화감독과 선수들〉



〈중앙에서 날려오는 속공공격하는 진진선 선수〉

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이끈 하 감독은 부임 이후 2006년 18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과 준우승을 수차례 기록하며 동명중·고교 배구를 전국 최강의 반열에 올려놨다. 이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인정 받은 하 감독은 2011년 당시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새 사령탑을 맡을 것을 제의하고 2003년부터 모교에서 제2의 지도자 인생을 걷게 된다.

모교로 돌아온 하중화 감독은 특유의 지도력으로 다시 한 번 동명고를 고교배구 최강자의 자리에 올렸다. 감독 복귀 후 얻어온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를 동명고로 가져왔다.

학교 팀 감독으로서 가장 힘든 건 역시 선수 스카우트, 학부모를 설득하는 작업



〈배구는 진정 원팀이 되어야 하는 스포츠, 경기중 하나가되어 화이팅을 외친다〉

Q. 후배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냥 말 좀 잘 듣고 안 다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배구가 몸을 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 부상 걱정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한 두번 보고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배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앞서 말했 다시피 선수들 사이 불화가 생기면 개인 에게도 팀에게도 좋을 리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운동 하는 거죠. 다들 좋은 운동선수가 되었으면 해요.

Q.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죠?

배구는 키가 큰 사람들이 유리한데 키가 작으내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인정받 는 선수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님 같은 분이죠. 제가 알기에는 임에 걸리셨다고 하셨는 데 임을 이겨내고 운동하시는 걸 보고 또 감동을 받아서 인생의 롤모델을 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출신이자 국가대표, 한국전력의 전광민 선수 역시 항상 본받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김지승) 일단은 올해 부상이 없어서 시합을 많이 못나갔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이제 성적 잘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32년 동안 전국체전 금메달을 한 번도 못 땄는데 올해는 꼭 우승할거예요. 주장이라서 부담이 많긴 한데 티 안 내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Q. 수상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을, 최근 성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작년 3월에 출제 남녀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했고, 전국 선수권 대회와 대통령배에서 당당히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 체전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배구 명문이지만 32년 동안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한번도 못 땄는데 올해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중 작전다임을 갖는 하중화감독과 선수들〉



〈중앙에서 날려오는 속공공격하는 진진선 선수〉



〈3명의 상대수비 블로킹 사이로 공격하는 유대수 선수〉



〈안정적으로 리시브하는 김대민선수〉

[취재/ 신현술(삼현여고), 김태현(사대부고)기자]

[JOB을 잡아라] 꽃바람 공방 강선녀대표를 만나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면 가장 행복한 것

이번 '잡을 잡아라' 는 올해 미국 워싱턴포스트에서 발표한 미래에도 살아남을 유망직업에 속하는 목수이다. 목수라고 하면 전통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힘들고 3D작중으로 남자들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미래 직업 목수는 그런 선입견을 거부한다. 요즘은 기계를 이용하여 하는 작업들이 많고 공구들도 잘 발

달되어 있어 여성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목수라는 직업이 예전처럼 집을 짓는 등의 건축분야도 있었지만 요즘은 가구를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예품을 제작하는 등의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가구나 구조물이 아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진주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다. 목수, 공예가, 인테리어 기획등의 일을 하며 '꽃바람 공방' 을 운영하고 있는 강선녀씨다. 진양호 입구에 위치한 썬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그녀의 공방으로 가보자.



손 없잖아요. 꼭 그 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구요. 꿈이란 것에 너무 강요 당하거나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에도 살아남을 유망직종 '목수'

Q 직업으로서의 목수나 공예가 어떨까요?

A 전 당연히 추천하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 추천보다는 꼭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창의력으로 인간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수는 컴퓨터나 기계, 또는 어떤 시스템이 대신하지 못해요. 인간이 기술과 감성, 그리고 직접적인 노동으로 창조해 내야 하는 일이에요.

Q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A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창의적인 게 가능해서 좋긴 해요. 예술작품을 주로 만드는 사람이면 경우가 다르지만 직업으로서 목수나 공예가는 자기 좋아하는 일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매뉴얼을 익히면 됩니다.

Q 고등학교 학창시절에는 어떠셨을까요?

A 아주 평범한 하고 별로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또래 애들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Q 미대를 나오셨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쪽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A 아니요. 재수하면서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림 그리는 것, 글 쓰는 것 좋아했었어요. 그냥 그런 직업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대학을 성적에 맞춰서 갔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재



〈꽃바람 공방 입구, 강선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미가 없는 거예요. 약간 화가 났죠. 거의 20년의 세월을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생활에 실망을 한거죠. 그대로 있다면 시간은 가고 공무원시험 준비도, 미래가 뻔한 거였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학교를 그만두고 미대입시를 다시 준비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걸 선택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말이지요. 물론 부모님께는 미술을 한다는 걸 속였죠. 워낙 평범하신 분들이거든요. 합격하고 말씀드렸어요.

Q 목공예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A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디자인을 먼저 해야죠.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하고 사람을 뽑는다든지 문물 만든다든지 어떤 장식을 한다든지 등을 고려해 전체적인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나무를 재단하고 재료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만들고 조립을 합니다. 칠을 하고 장식이나 칠물도 다죠. 마지막 마감처리를 하면 끝이죠.

Q 클라이언트한테 불만이 들어 본 적 있는지?

A 있죠. 당연히 조정을 하죠. 기형 가구를 배달을 했는데 색깔이 여기서는 오케이 하고 있는데 색은 개인적인 취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맘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맞추는 것이 있다고 봐요. 조율이죠. 그런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엔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는 비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억지스런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서 소통능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도 있고요. 함께 일하는분들 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Q 다른 목공예 공방들과 차별된 점이 있다면?

A 저희 공방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전통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적이지,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전 그것을 가르쳐 드리죠. 또 다른 공방들은 남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무래도 색에는 민감하지 않으세요. 전 미술쪽을 하다보니까 가구에도 색을 잘 쓰죠. 색을 쓰는 것도 원하는 가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 자신의 일에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나요?

A 제가 만든 공간이나 가구를 두고두고 잘 사용하고 있을 때예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 제가 만들고 기획했다는 것을 비로 알아봐 주실 때가 있어요. 예쁘고 멋진 공간이라고 하면서 '강선녀' 라는 제 이름을 떠올렸다는 후일담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죠. 가구든 공간이든 전 만들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인이 좋아해 주고 만족하면 그게 최고죠.

Q 만드는 가구들이 자연이 있을 듯 한데, 기억에 남는 외화인?

A 최근에 젊은 여자들이 화장대를 주문을 하셨죠. 딸이 돌이 있는 데 큰애는 중1 딸에 여동생이 태울이 커서 4살 정도였어요. 얼마가 딸의 화장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했죠. 이쁘게 만들어 시집갈 때 써 보낼거라고 하더라고요. 배달도 화장대 들어오는 날 파티할거라고 친구들을 초대 했었었어요. 중1이면 반항도 하고 참 힘들텐데 참 화목해 보여요. 큰 딸이 또 어린 여동생을 잘 챙기더라고요. 가구는 제가 만들지만 가져가면 그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 하잖아요. 그렇게 만나다보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Q 외국의 목수가 선망 받는 직업인데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A 제가 한 60살 정도 되면, 'ㄸ' 미국에 출장 가서 보니까 기술력이 인건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결국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없어진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미국을 따라가겠죠.

Q 자신의 꿈에 대해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A 근데 꿈이 꼭 있어야 되나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도 좀 강요당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좀 답답해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라는 곳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죠. 청소년들을 한 곳에 가둬놓고 꿈을 막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선 꿈이 없을 수도 있죠. 꿈이 정당처럼 하나일

을까? 이렇게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는 그런 것이 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꿈꾸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시대의 청소년들은 오늘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른들로부터 꿈같지도 않은 요상한 꿈을 강요 받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이 꿈이고, 어떤 직장이 꿈이고, 연봉이 꿈이고, 부자가 꿈이고, 권력이 꿈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안어쩌라는 꿈이 없으면 생각없는 놈, 병신 취급이 당연한 듯 뒤 따릅니다.

꿈. 우리 청소년들의 특권.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꿈꿀 수 있는 가정과 학교를 인제껏 만들 수 있을까요?

[취재/ 한승재(진주여고1), 김동성(명신고1), 전현주(삼현여중3)기자]

양변기 VS 화변기, 당신의 선택은?

학교 화장실 변기 선택의 고민을 해결하다

학교생활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바로 화장실이다.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라. 학교 생활에서 공부하는 것, 먹는 것과 건주어도 될 만큼 생리현상의 해결은 중요하지 않겠는가? 화장실속 변기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학교에 가면 보통 두 종류의 변기가 있다. 보통 좌변기와 양변기, 혹은 좌변기와 우변기 등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양변기와 화변기이다. 의자처럼 앉는 형태의 변기를 양변기라고 하고, 쪼그려서 앉는 형태를 화변기라고 하며 두 변기 모두 좌변기에 속한다.

급한 마음, 화장실에 도착해서 우리는 한번쯤 고민 해 보았을 것이다. 양변기를 쓸 것이냐. 화변기를 쓸 것이냐 양변기를 사용한다면 조금 찜찜한 마음이지만 편할 수 있을 것이고, 화변기를 사용하면

면 조금 불편할지언정 상대적으로 청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과연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화장실에서 관찰해 보면 양변기 보다 화변기 사용률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패째쳐 보았다. 양변기 vs 화변기, 전적 비교 분석!

우선 양변기부터 보자. 양변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처럼 의자형태로 변기에 걸터 앉는 구조의 변기이다. 편하게 앉아서 불안을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부가 닿았던 곳에 자신의 피부가 닿는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커버를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그 물이 변기 주위 곳곳에 튀어 날라노스 모두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sns가 우리생활에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ns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최근게시물들을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며 소식을 알고 소통할 수 있으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유용한 정보도 종종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ns가 생활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SNS에 걸고음이 들린다. 바로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어지는 19금 음란 게시물 때문이다.

SNS는 sexy network service ?

깜짝이야! SNS 음란물 그만 보고 싶어요

가칭 SNS시대다. 버스, 지하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sns(



이것이 자동으로 반복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된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음란물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즘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SNS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는 청소년시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 이전에 SNS로 각종 음란물들과 부적절한 성 정보를 얻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성의식과 순간적인 성범죄를 초래할 위험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자신의 의지라는 상관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란물을 접하고 싶지 않거나 거부감 있는 사람들에게겐 정신적인 피해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

대표적인 sns인 facebook의 최근게시물에는 팔로워한 페이지나 친구들의 소식 등이 보인다. 그러나 그 게시물들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그 소식을 중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금 게시물이다. 너무나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내용들도 많다.

19금 사이트를 광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익을 늘리기 위해서 19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정한 시간에 올리는 페이지들도 많이 있다. 이런 음란물들은 한 사람이 게시된 내용이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 곳에 댓글을 달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타임라인에 뜨게 된다.

그렇다면 화변기는 어떨까? 우선, 여기 숨어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화변기가 양변기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배변을 할 때, 인체 구조상 양변기보다 화변기가 대장과 항문에 더욱 좋다 고 알려져 있는데 두 발로 적지 않은 시간 몸을 지탱하는 자세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변기와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불쾌감도 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숨길 수 없는 단점이다. 사실 이같은 이유로 화변기를 택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두 변기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편의, 혹은 청결도 등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변기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물론 급하면 가릴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학교 화장실인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청소에도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박주희(경해여고2)기자]



고 음란물들은 여전히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너무 급하게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고 SNS가 생활이 되어 버리는 동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무관심하게 흘려버리고 당연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부적절한 게시물들을 막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노력이나 아닌 많은이들의 관심과 대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깨끗하고 건전한 sns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정소영(삼현여고2)기자]

에어컨은 가구가 아닙니다.

폭염에도 에어컨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8월, 곳곳마다 에어컨이 설해 없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마음 놓고 에어컨 성능을 최대한 누리기는 쉽지 않다. 전기요금 또한 쉬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 사용을 주저한다. 더구나 전력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요금 폭탄, 그 무섭다는 일명 누진세가 적용되는 많은 가정과 학교에서 에어컨은 인테리어 가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1단계~6단계의 누진세 체계다. 100kWh 단위로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1단계인 100kWh 이하를 사용하면 기본요금은 410원이다. 반면 500kWh를 초과해 사용하면 기본요금도 1만 2940원으로 바뀐다. 최저치 대비 무려 31.5배 차이가 나는 엄청난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즉 학교의 전기요금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많은 학교가 교육 복지 재정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오면서 손쉽게 줄일 수 있는 학교 기본 운영비인 공공요금부터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실제로 전기료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결국 학교는 전기료를 줄이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기본운영비는 2013년 2조6348억 원에서 올해 2조5301억 원으로 줄었다. 또한, 본래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보다 비싼 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7월부터 실시한 전기료 경감 정책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인하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켜뚝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싼 편이다. 물론 일반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세를 감안하면 싸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이나 대기업, 큰 소상공에서 쓰는 산업용, 상업용 전기 요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싸다.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전력

부족 등으로 협력 아닌 협박을 하며 절전캠페인을 벌이고 누진세로 요금폭탄을 퍼붓지만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에서 가정용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이 52%, 공공상업용이 32%다. 정말 아까워하고 절전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에게 할당으로 전기세를 내게 하는 혜택을 주며 13%밖에 안 되는 가정에는 누진세로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꼴이다.

전력소비량의 84%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전기료가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에어컨이 가전제품이 아닌 가구가 되어 있는 이상한 현실은 끝날 것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될 무더운 여름,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사용하



지 못하고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켜뚝뚝을 자력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시민들의 일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진주제일여고2)기자]



직업 (목수)	관련학과	자격증
전통건축원	건축학과	문화재수리 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훈장 산업기사
가구 디자이너, 목공예가	목조형가구학과, 공예학과	가구제작 기능사
인테리어 목수(내장목수)	실내 디자인과	실내 건축 산업기사

[필통실험실] 제조사별 점착메모지 비교분석

20세기 가장 단순하고 쓸모있는 발명품 점착메모지의 모든것

적막한 시험기간, 자습시간에 여러 친구들의 집중을 깨민서까지 전달하는 이것, 학교 앞에서 학원홍보자료와 함께 나눠주는 이것, 바로 점착메모지이다. '포스트 잇'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

점착력 테스트, 3M의 완승

메모지를 고르는 기준 중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다른 이난 점착력이다.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점착' 메모지의 점착력을 확인하는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직종하는 선풍기에 붙여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있는지 확인해 봤다. 그 결과 제조사별로 3M 1분 56.95초, 프린텍 31.90초, 알파 13.56초, 이젠 10.41초, 다이소 10.28초 순으로 결과가 나왔고 원조 브랜드인 3M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점착력만큼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했다. 다이소와 이젠은 겨우 10초 정도를 버티는 수준이었다.



점착제 도포면적 조금씩 차이



의 차이가 있었다. 그 면적과 점착력이 비례하지는 않지만 가장 점착 면적이 적은 다이소는 점착력 실험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종이의 잉크번짐 정도 비슷해



또한 종이에 따른 잉크 번짐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메모지에 수성 플러스펜을 사용해 글을 쓰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결과를 살펴보았다. 위 사진과 같이 큰 차이를 발견할 순 없었다. 이 실험을 하며 또 한 가지 발견한 점은 다이소의 메모지의 경우 일부만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메모지에 검은색 수성물감을 칠해보았는데 다이소와 이젠 메모지에서는 같은 메모지에 물감 흡수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반종이가 점착메모지로 변신



일반종이도 점착메모지로 만들어주는 재점착물이다! 점착메모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종이의 뒷면에 물을 바른면 원하는 곳에 인제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점착메모지가 된다. 편리 하지만 붙인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TIP 점착 메모지로 책갈피 만드는 방법

1. 첫사각형 모양의 메모지 한 장을 준비한다.
2. 4등분이 되도록 접었다 펴준다.
3. 접은 선을 따라 반씩접기를 해준다.
4. 뒤집어서 삼각형모양이 되게 두 번 접었다 펴준다.
5. 4에서 접은 종이주름대로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6. 접었던 네 귀퉁이에서 한쪽을 펴준 후 위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준다.
7. 책갈피 완성



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다섯 개 회사(프린텍-스티카노트, 알파-엠포스티, 다이소-점착메모지, 3M-포스트 잇, 이젠-이젠메모지)의 점착메모지를 구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회사별로 제품명도 다른편이더 심지어 마지막 장 디자인도 다른 점착메모지들이다. 어떤 메모지를 선택할까 고민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비교분석 할 5개 제조사별 점착메모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특이해진 점착메모지!



스카치테이프를 달은 점착메모지도 있다. 원하는 만큼 뜯어 쓸 수 있어 좋다. 필기량을 가늠하지 못할 때 유용하며 뒷면전체가 점착성이 있다. 리필도 따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새것으로 갈아 끼워 사용할 수 있다.

투명점착메모지도 있다. 미끄러운 비닐소재이지만 볼펜과 연필을 사용해서 글을 적어도 번지지 않는다. 친구 교과서를 빌렸을 때 투명메모지에 필기하고 옮겨 붙이기 좋다. 교과서 그림 위에 필기하면 그림을 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각 제조사별 비교표>

회사명	프린텍	알파	다이소	3M	이젠
제품명	스티카노트	엠포스티	점착메모지	포스트 잇	이젠 메모지
두께(100장)	0.9cm	1.1cm	0.96cm	0.9cm	0.96cm
가격	1000원	900원	1000원	1300원	1000원
점착 시간	31.90초	13.56초	10.28초	1분 56.95초	10.41초
점착 면적	8㎠	9.25㎠	7.5㎠	7.5㎠	10㎠

점착메모지의 탄생 비하 포스트잇의 원리, 우연이 만든 '대작'

포스트잇은 20세기에 발명된 물건들 가운데 아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쓸모 있는 제품일 것입니다.

1968년 스펜서 실버 박사는 점착 테이프와 화학 도로 등을 만드는 미국의 3M(쓰리엠)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버 박사는 초강력 풀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연구 끝에 만들어진 풀은 오히려 들러붙는 힘이 너무 약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풀로 물건을 붙이면 쉽게 떨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실버와 그의 사서들은 이런 풀도 어딘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엔 방법을 찾질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4년, 역시 3M에서 일하던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은 매우 교회에서 성가를 불렀습니다. 프라이는 일요일마다 쓰는 찬송가 책에서 원하는 성가를 금세 찾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책갈피들을 끼워 두었습니다. 하지만 책갈피들은 걸맞으면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트 프라이는 예전에 동료가 만들었던 점착력 낮은 풀을 떠올렸고 당장 그 풀을 얻어다가 종이 코트머리에 발라 보았습니다. 짜잔! 프라이는 불렀다 썼다 할 수 있는 책갈피를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점착에 골잘 들러붙지만 책장을 찢지 않고도 쉽게 떼 수 있는 책갈피였습니다. 끈적한 종이 조각은 책갈피로는 물론이고 기억해야 할 일을 적어 두거나 남에게 간단히 쪽지를 남길 때, 물건을 분류할 때 쓰이에도 훌륭했습니다. 1980년 3M은 드디어 포스트잇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잇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포스트잇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애용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 포스트잇을 수십 조 개를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취재/ 박가을(진주여고1), 문여주(사대부고1)기자]

[임진용의 재미있는 과학&역사 이야기]

제1화 코페르니쿠스 태양중심설의 등장

우리는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믿기 위해서는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고들 생각한다. 그런데 눈앞에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모두 부정하고 그 반대로 믿으라고 한다면 과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천체들의 운동이 그렇다. 해와 달은 동쪽 지평선 위에 떠서 서쪽 지평선 아래로 진다. 별들도 똑같은 방향으로 뜨고 지기를 반복한다.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들 모두가 우리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음에도 눈에는 그 반대로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진실이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과 지구의 운동과 관련해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진실임을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다.



데투리에는 '신과 모든 선민(選民)들이 임하시는 자상을 지배하는 하늘'이라고 적혀있다. [16세기에 그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도-지구중심설]

재와 다르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과거 16세기 이전의 유럽으로 시공간(觀空間)을 이동한다면, 어떻게

볼까? 아마 그 시기에 태양중심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기독교 교리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과학은 때때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진위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가치관을 신평하고 있는 것이냐가 오직 중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은 지구이고, 천체들은 분명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확신했던 그 시기에 유독 태양중심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던 것일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도 불리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 폴란드 토론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졌으나, 가톨릭 주교였던 외삼촌의 후원을 받아 어렵게나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외삼촌이 학비를 조달하여 당시 폴란드의 명문대학이었던 아가멜로니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폴란드 가톨릭 교구의 지원을 받아 다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이탈리아는 동로마제국 멸망(1453년) 전후로 유럽으로 유입된 그리스 고전(古典)들이 화려하게 부활하며 피렌체의 아카데미아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에게 새롭게 해석되면서 각 분야의 학문들은 오랜 만에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 환경에서 코페르니쿠스는 고대 플라톤 사상이 여러 시대적 그리고 지역적 요소들과 융합하여 진화된 신(新)플라톤주의를 접하게 된다. 플라톤주의 학자들은 정통(正統) 플라톤주의와 차별화된 이론을 펼치면서 학문 연구 방법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 당시 신플라톤주의 학자들 몇몇은 오랫동안 외삼 없이 신봉하던 지구중심설에 의문을 가지며 새로운 우주론을 조심스럽게 구상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구체적인 정형화된 태양

중심설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당시 태양중심설을 연구하던 선각자들은 지구중심설이 진실이라고 규정한 기독교 교리(敎理) 말고도 넘어야 할 산책이 두 개나 더 있었다. 하나는 수학적으로 체계화되어 1300년 동안 천문학계를 이끌어 오던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이었고,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은 당시 모든 대학에서 천문학의 정통으로 여겨지며 계승되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해석적 기준으로 유럽의 학풍을 견인하고 있었다. 당연히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의 수학적 표현이었으며, 기독교 교리 역시 지구중심설을 채택하고 있었기에 이 세 축(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 기독교)은 당시 세계관을 구성하는 삼위일체가 되어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계승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을 프톨레마이오스가 사용한 수학적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수리적 논증을 통해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이 모순됨을 증명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용하던 삼단논법을 그대로 응용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중심 우주론의 한계를 반증했다.

이처럼 새로운 도구나 조건들이 제공되지 않고, 기존의 조건과 방식들만을 동원해 (상반된 이론의 모순들을 증명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출해 내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을 모두 유린시켰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세계관을 전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기독교 교리는 이 세상의 존재 이유와 진행 방식들이 유일신(唯一神)이라는 절대적 존재의 계시(啓示)를 통해 설명되고 천명된 것이었으므로, 인간의 (관찰과 실험에 의한) 감각적 활동에 의해 밝혀진 것들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상반없이 교리의 권위는 무소불위(無



거의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애매지고 싶은 욕망도 강하지만 그만큼 기질도 드세기 때문이죠. 대부분 여학생들의 치마는 무릎 위로 시원하게 올라가 있는데 규정은 무릎 위 3cm입니다. 몇 년째 입은 교복 교체 수도 없고, 걸리는 애들만 또 걸리곤 합니다.

인권도 민주화도 모두 교문 앞에서 멈추고 말지요.

아이들은 반드시 교복 상의를 입고 외투를 걸쳐야 하고 아무리 추워도 실내에서는 외투를 벗어야 합니다. 베틀이를 매야 하고 체육복은 학교에서만 입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등교하면 바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생활하다가 아자를 마치면 체육복 차림으로 집에 갑니다. 치마는 종일 가방에 담겨 있다가 아침 등교할 때 사용됩니다. 물론 짙은 화장이나 염색, 파마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형식상 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지요. 게다가 요즘 학생들의 대표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정한 용의복장이 학교의 명예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니다. 출근한 지 반 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후배를 짙은 치마 확정한 모습이 정말 보기 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所不爲)의 것이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가 자연철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태양중심설을 논증했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출판됨으로 써 교회 당국의 맹렬한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한편 코페르니쿠스가 제안한 태양중심설은 곧장 학계에 쉽게 수용되지 못했는데,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1543년에 출판되고 1600년이 될 때까지 티코를 비롯한 여러 천문학자들에 의해 정통적 지구중심설이 안고 있던 몇 가지 골치거리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로만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일부 요소들이 적용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케플러, 갈릴레이를 비롯한 극소수의 학자들이 보다 세련된 수학적 논증들을 이루어 내고, 또 한편으로는 망원경 관측 결과의 엄밀한 분석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계승하며 발전시켰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엽까지 학계에서 상당한 논쟁을 거친 후, 뉴턴에 이르러서 1687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일명 '프린키퍼')를 통해 비로소 태양중심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천문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건들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소개할 예정이다.



임진용
(동명고 교사)



가끔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아이들을 맞이하는 학교 이야기들 듣습니다. 대부분 사립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적응도 있었지만 꾸준히 실현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인사를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그 하 나만으로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 기묘한 벽이 많이 무너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학교도 우리학교와 거의 비슷한 생활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세세한 규정을 없앤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네요. 다만 그 학교들은 학생들과 들러앉아 합의하여 규정을 만들었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을 겪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큼니다.

그런 모든 규정을 없애버릴 수는 없을까요. 완전한 두발 자유, 교복 폐지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존 테일러 개토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아이들을 믿고 결정권을 주어야. 그러면 학교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다."



김중희
(교사, 진주중앙고교에 계시다 지난해부터 거제 욕포고에 근무)

에나 지금이나 교사들을 가장 지지해 하는 것은 용의복장 때문에 부닥치는 아이들과의 갈등입니다.

남녀공학학교인에도 교문에서 적발되는 아이들은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건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일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동명고 1-6반 친구들

애들이, 많 못했는데 2학기에는 나 정장하게 됐는데 어 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해. 학창기동안 내 지시를 잘 따라줬서 고맙고, 친해진 애들도 많이 있고 친했던 애들도 많이 있는데, 3년 동안같이 못 지내서 아쉽네.

술자리 우리 반의 편파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2학기 때는 태민이란 민석이 말 잘 듣고 담임쌤 말 잘 들어, 수업시간에 그만 좀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읽을 수 있길 빌며, 1학기 동안 고맙다!!

-- From, 동명고 1-6반 부반장

To, 정화님♡

From,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정화님♡ 저희 때문에 잘못 못 주무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제 말 잘 들리게 되니 다음에도 무데로 참가해서 정화님 옆에 꼭 붙어있을게요!! 정화 이별!!

To, MUNNEO

From, 진주여고 1학년 이화진

고등학교 와서 MUNNEO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던 경험이었어요. 제 4회 MUNNEO에도 참석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To, MUNNEO

From, 캐나다 퀘벡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회였다니...너무 늦게 알아서 아쉽네요!!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무데로♡♡

To, 의장단

From, 노경혜

가장 고생 많으셨어요. 이별!! 장생기(?)! IOC의장단님들, 그리고 스태프님들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To, 최영환



ㅋㅋㅋㅋㅋㅋ ㅎㅎ ㅎㅎ ㅎㅎ ㅎㅎ누군지 알지?
 고려대 못보으면 사발하는거 알고 있지? 간서 아직 가지고 있다 ㅋㅋㅋ
 백광화세희 맨날 폐북들이어서 뭐 보지않고 안본지도 오래됐네, 수능 끝나고 보면 너 래퍼되었는건 아닌가 모르겠다 ㅋㅋ
 아님 벼줄...? 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 장난난 거알지.. 앞면 나랑 같이 수능치기 말고 지금 열심히 해서 제발 좋은 결과 얻어!!
 배수진이었나? 저번에 말했었지? 뭐 뒤에 가발을 던져주고 벼는 넣는다는 뜻이고도 통탄하고.. 너가 저번에 말했었잖아 ㅋㅋ
 절벽이 아니라 뒤에 사발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발 공부 열심히하길.. 에.. 사발이 너무 약했나?

★★중국어회영화 고려대간다!!!!!!★★

모두가 안다 이제 년 못보으면 개죽 ㅋㅋㅋ 힘내라, 사발하면 되지 이리고 공부안하면 진짜 안돼!!

최영환 인생을 위해서.. ㅋㅋ 일생에 한번뿐인 대학 서울한번 째어줘라지? :)
 멍안게 고려대 딱 붙어서 합격중서 자랑하예!! 수능대박도 공부를 열심히해야 나오는거겠지. 열심히해서 꼭 수능대박나길.
 최영환 수능대박!!! 오련만에 보고싶네!! 수능 끝나고 밥사라이!!
 영진!! 파이팅!!

-----From, 박박

To, 6반 아이들아~

안녕! 6반아이들아 ㅋㅋ
 내가처음으로이런걸써보네!"
 이글을 언제 너희가 보게될모르겠다만
 보통 광짜물라겠지 ㅋㅋ
 우리가 막 어색해서 그렇게 지냈는데 벌써 1학기가 지나고 2학기에...
 내가 반장일을 처음 해보서 많이 서투르..!!
 진짜 미안하다. 그래도 따라와 주는 너희들 보면 진짜 고맙다.!!
 이제 슬슬 서투른 몸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면서 좀 슬프

기도 하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꼭!! 좋은 일있어!
 힘들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 주면서 남은 2학기 열심히 해보자!!!!
 6반 화이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조금만 더 열심히 대답 하자이~)
 --6반 최고! 6반 화이트! 6반 사랑한다! --

[정지/ 신윤지(사대부고2),최하나(진주제일여고2)기자]

MUNNEO에서 필통우체통에 단체 사연을 보냈습니다.

모의 UN대회인 MUNNEO가 지난 8월9일부터 11일까지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MUNNEO(신명동 모의 UN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행사를 마치고 함께 우체통에 사연을 보내 왔습니다. 지면관계상 모두 실지는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To, 진주고 1학년 1반~

필요일 학교보충수업도 땀고 모의유엔 와서 큰 반한테 무식당하고 싶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가고 인문계라고 실업자 취급당하고 싶지 말자. 세상에 필요한 인재는 자연계가 아니라 인성과 판단력을 갖춘 인문계대! 그러니까 남은 학기 열심히 하자! 진운호 선생님도 힘써주세요!

--From, 1반 반장

To, 장정화스태프님♡

From, 영국 하승민 대사♡

2학 3일동안 밤낮도 자지 못하고 고생하신 정화님.....♡ 덕분에 필통하고 즐거운 회의 할 수 있었습니다. 무데로 소개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는 정화가 좋재!! 사랑하재!! 아끼재!! 남은 2학기 잘 지내자 정화아...♡

To, 박윤찬

From, 장채원

네가 모의유엔을 하고자 호불호 2회 때부터 하자고 했는데 저번에는 구제대에 벼들 것인데 9만원 남바라러 가냐고 했고, 이번에는 7만원하고 여자 보러 가냐면서 내가 모의유엔을 우리 방에게 호불호는 것은 밝혀한 나쁜 자식! --3-- 됐든 지난번에는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새까맣다 재민! IOC는 추천하고 싶고, 너 안할거면 우리 방 애들한테 안 좋게 말하지 마라!

To, IOC

From, 김정훈 IOC의장

MUNNEO 3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장이었던 대아고 2학년 김정훈입니다. 먼저, 장장 9개월동안 이 대회하 나만을 위해 함께 준비한 MUEENO 3회 운영진분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회에는 비교적 참가자모집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믿고 참가해주신 학생대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말 전하고 싶습니다. 2박3일 동안 함께했던 우리 IOC대사분들! 회의한다고 장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처음 접하는 모의유엔 대회로 어렵기도 힘들기도 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 의장단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또 IOC 스태프였던 형님이, 보습이, 정화한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경제사회국 지훈이!! 마지막으로 2박3일 동안 학사 옆에 있었던 미모의? 부의장! IOC 부의장 한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참가자 모집한다고 뛰어다닐때 선택 참가자의료 보시고 참여했던 대아고 유영재, 이현우, 김경환<이 친구들 한테도 너무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munneo(무네오)는 진주유일의 모의유엔으로 이번에 3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12월~1월)에 있는 munneo 4회때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From, 이규정

To, 강다홍 사무총장

From, 김지훈

새벽에 복침번 서 있는다고 고생하고, 문에 부딪쳐서 멍도들고, 지금 멍 없애져서 다행이다! ㅎㅎ ㅎㅎ 그리고 새벽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귀신인줄 알았어!! ㅋㅋ 힘내라♡♡

To, 장재원

From, 낙타

재원아! 이번에 너의 추천으로 MUNNEO에 참가하게 되었다.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참가하게 해준 거에 대해 고마워! 아무튼 너 때문에 재미있는 기억을 남기고 가고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선생님] 삼현여고 국어과 김세발선생님

학생들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Q. 국어선생님이 되신 이유는?

- 영어, 수학을 못해서요 ^^;;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 주신다. 국어(실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 선생님(나 내 미래가 있는 학생들과 대화하는 게 좋아서) 이라고...

Q. 선생님 입장에서 삼현여고의 첫인상과 생활은?

- 첫인상은... 아리따운 한복을 교복으로 입는 단아한 학생들을 보고 정말 안전하고 차분할 줄만 알았어요. 그 때는... 물론 대다수가 잠~~~하지만, 이젠 남학생들보다 더 혈기왕성하고 거친 매력을 지닌 여학생들도 많다는 걸 알았답니다. ㅎㅎ

Q. 삼현여고 오시기 이전에 남고에 있으셨는데 여고와 남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 남고는 학생들이 간식을 많이 먹어요. 음... 그런데 여고는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요 ^^ 그리고 남학생들은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면 웃는데, 여학생들은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말기 힘든 현실을 경험했죠. 그리고 확실히 다른 건, 남고 제자들은 재학 중에 애교도 없고 감정 표현도 쑥스러워 하지만 졸업하면 자주 연락이 와요. 그런데 여고 제자들은 늘 자주 찾아오고 친근감을 표시하지만 졸업 후에는 연락이 뜸해져요. 모두들 임을 찾아 떠나간 것 같아요. ^^

임 후에는 연락이 뜸해져요. 모두들 임을 찾아 떠나간 것 같아요. ^^

Q. 고3 담임을 맡고 하시다 올해는 2학년을 맡게 되셨는데 예비 고3인 2학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3학년이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ㅎㅎ 그리고 고민이 있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어요... ^^

Q. 올해 2번 필통신문에 성함이 언급되시다 선생님의 직접적인 소개는 처음인데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신다면?

- 우리 2학년을 덕분에 올해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직접 소개는 부끄러우니까 좋아하는 걸 쭈~욱 말해볼게요. 수영, 악어 그려진 옷(?), 비틀즈, 아바, 가수 율미레와 임정희, 아이스 카페레메, 돈가스, 영화 '클래식', 만나라 이웃나라, 전현무의 굿모닝FM, 포기침, 음료(?) 청다오, 레고, 뽕갈고무나무, 물디브, 바다, 우리학교 잔디밭. 웃음이 많은 순수한 학생, 화가 클림트, 멍하게 있기, 한기로운 오후, 비오는 날 창밖보기 등이 있어요.



필통네모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8월호는 9월 18일(금)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천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천을 통해 3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용, 또 10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용 각각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및 다음으로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칸이 있는 숫자퍼즐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를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들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통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은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1.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할 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2.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3.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 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지난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문화상품권 1만원 : 이제진(명신고 1-3)/ 주여영(사대부고 2-3)/ 박효림(삼현여고 1-9)
 문화상품권 5천원 : 송해선(진주여고 1-3)/김건원(진주제일중 2-7)/지혜경(진주제일고 3-9)/ 정다빈(진주제일고 2-9)/ 최준홍(동명고 1-10)/ 정지호(대아고 1-7)/ 정한이(경해여중 3-1)/ 김현정(신명여고 2-7)/ 이광호(진주기공 2-6)/강기훈(중앙고 2-7)

*당첨된 분은 학생기자 또는 선생님이나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통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070-8628-1318)

이번 필통 <우리 선생님>에서는 삼현여고 2학년 1반 담임이시자 국어선생님이신 김세발선생님을 만나보았다. 삼현여고 2학년, 그 어느 반을 가도 인기투표 1위를 거머쥐시는 새활선생님!!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Q.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지고 계시는 신념이나 교육방침이 있으시다면?

- 수업을 함께 하는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하자!!! 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좋아라하며 키우는 뽕갈고무나무에 물을 주는 기분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꼭꼭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항상 수업에 임한답니다.

Q. 2학년 학생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현재 담임이신 2학년 1반 아이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비결은?

- 고마워요.ㅠㅠ 옆에서 아내가 "이내의 내조" 덕분이라고 외치는데ㅋㅋ 비결보다는 그저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고 생각해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Q. 교직기간 중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 에피소드라... 음, 2년전에 삼현여고에서 첫 제자들이 졸업하던 날, 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산점든 교실에서 한 명씩 졸업장을 나눠주면서 가슴이 뭉클해진 적이 있었어. 그때 평소 시끄러웠던 한 학생이 갑자기 나오더니 "선생님, 제가 한 번 안아줘도 돼요?" 하더니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나를 안아준(?) 사건^^;

Q. 이름이 특이하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에피소드나 별명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일본 오사키에 갔을 때, 행정적인 문제로 이름을 한자로 쓰라고 하여 '술새비(한글이름이라...)' 이

라고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계속 '새비' 온 한자가 아니라며 자꾸 한자로 쓰라고 하고, 나는 계속 한자가 맞다고 하고... 포기한 담당자는 그냥 제가 이름을 한자로 적을 줄 모르는 한국인이라 생각했다는 술꾼 선생이ㅠㅠ

Q. 교향이 통영이라고 들었는데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통영의 관광지가 있다면?

- 통피랑, 이순신 공원, 미륵산 케이블카 등이 유명하긴 하지만... 저의 교향집^^? 진주랑 가까운 통영이니까 바다가 보고 싶으면 꼭 가보세요~

Q. 요즘 폭폭 짙는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선생님만의 여름나기 방법이 있다면?

- 이불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기.

Q.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 지금의 아내라고 말해야 되겠죠? ^^

방학때 우연치 않은 연수로 인해 보충수업을 오시지 않아 선생님을 만나고 인터넷을 하기가 꽤나 어려웠다. 야미도 누구라도 김세발선생님과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선생님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말뿐이 아닌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위하고 정말 학생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진행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아름답다. 진짜 우리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의 선생님' 이다.

[취재/ 교유리(삼현여고2)기자]

